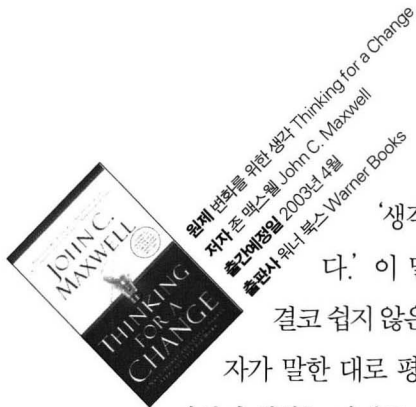


English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 말은 흔히 듣는 말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말일 것이다. 이 책의 저자가 말한 대로 평생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변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책을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책 한 권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리더십 전문가이자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맥스웰은 우리에게 다음의 교훈을 주고자 이 책을 썼다.

“당신의 생각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당신의 감정을 바꿀 수 있고, 당신의 감정을 바꿀 수 있으면 당신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당신 행동의 변화 - 반드시 좋은 생각(good thinking)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 - 는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다.”

독자들이 책을 본격적으로 읽어 나가기에 앞서 저자는 짧은 하나의 예를 통해 생각의 차이가 인생의 모습을 결정하는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가를 소개하면서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을 살짝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크게 두 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생각의 변화란 무엇이며 왜 생각의 변화가 인생을 바꾸게 되는지에 대해 기술되어 있으며 제2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들이 성공success을 이뤄내는 핵심인가 하는 문제가 열한 가지의 생각을 통해 명쾌하면서도 집중력 있게 다루지고 있다. 특히 저자는 각 장의 끝에 각각의 생각들을 행동action으로 옮길 수 있는 아이디어도 빠뜨리지 않았다.

큰 생각, 집중적인 생각, 창의적인 생각, 현실적인 생각, 전략적인(계획적인) 생각, 가능성을 보는 생각, 반성하

박희연_청림출판사 외서기획팀

Thinking for a 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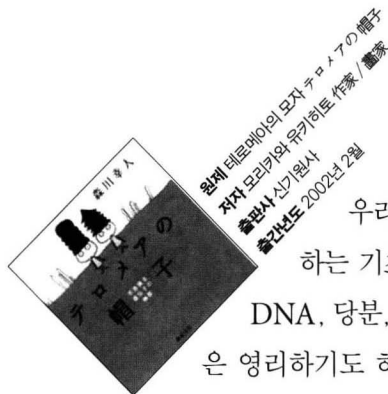
는 생각, 혁신적인 생각, 여러 사람과 공유하는 생각, 비이기적인 생각, 하나부터 차근차근 하는 생각.

여기에 언급된 열한 가지의 생각은 분명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지닌 것들이다. 물론 이 책을 읽는다는 행위 자체가 생각을 바꾸게 해주는 마술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의지와 노력이 수반되는 어쩌면 힘들지도 모르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수없이 쏟아지는 성공·처세 관련 서적들이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지만, 세상에는 변화를 겪으면서 성공하는 사람보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바로 그 생각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짐작케 해준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특히 이 책에서는 good thinking을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긍정적인 변화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내가 이 책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 이유 중 하나는 이 책 속에 저자 자신의 good thinking을 많은 독자들에게 전달해 주고픈 의지가 매우 강하게 담겨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을 읽는 순간부터 독자들에게서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저자의 확고한 의지가 단어 하나 하나에서 느껴지는 바로 그런 힘 때문이다. 저자 자신이 이미 good thinker이며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을 good thinker로 만드는 훌륭한 매개체를 전달해주고 싶은 것이다.

Good Thinking! 이 책을 읽고 난 후 계속 가슴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이 단어는 이미 내가 조금씩 good thinker로 동화同化되고 있다는 신호는 아닐까? 인생 역전! 그것은 그 어떤 종류의 복권도 아닌 바로 당신 머리와 가슴속에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생각을 바꾸는 일이 아닐까?

“현재 당신의 삶은 과거에 당신이 했던 생각의 결과물이다. 고로 미래의 삶의 모습은 현재 당신이 생각하는 것에 달려 있다!”



우리들의 몸과 생명을 유지하는 기초물질, 유전자, 염색체, DNA, 당분, 게놈. 그 성질이나 거동은 영리하기도 하고 코믹스럽기도 하며

마치 독립해서 살아 있는 듯하다. 우리 몸 속의 일이지만 그다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게놈의 세계.

이 게놈이 하나의 캐릭터로 등장하여 자신과 그가 살고 있는 불가사의한 세계를 그림 이야기로 전해주고 있다. 바로 《테로메아의 모자》라는 그림책이다. '세상에서 가장 희한하고 불가사의한 그림책'이란 건방진(?) 문구가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 책은 사실 커다란 비밀을 갖고 있다. 몇 겹이나 되는 모자를 쓰고 양쪽에 큰 눈을 단 캐릭터에 이끌려 내용을 읽기 시작하면 몸이 녹아버리기도 하고 손발을 교환하기도 하는 등 예쁘다고만 할 수 없는 그림책임을 알게 된다. 바로 '불가사의한 유전자 이야기'란 서브 타이틀에서도 볼 수 있듯이 DNA나 게놈 기술 등을 알기 쉬운 캐릭터로 비유하여 풀이한 이야기책인 것이다. 눈알만 커다란 캐릭터는 정확하게는 '게놈'이라 불리는 유전자나 염색체 등 유전자 정보 전반의 것들을 가리킨다.

복제 동물이나 인간의 유전자 정보해독에 성공한 일이 뉴스가 되는 시대가 됐어도 우리들의 대부분은 그 분야에 어두운 것이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테로메아의 모자》에서는 마지막 10페이지 정도를 빼고 유전자에 관한 설명은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는다.

〈녹아버린 도둑〉이나 〈두번째 인생〉으로 붙여진 아홉 개의 짧은 이야기가 보통의 그림동화처럼 편집되어 있다. 독자가 해설 페이지까지 읽어가다 보면 〈녹아버린 도둑〉이 'DNA에 잠입해 움직이는 월스'의 비유이며, 《테로메아의 모자》는 '수명을 담당하는 DNA'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이 장선 _ 소담출판사 편집부

テロメアの帽子

된다. 사전정보 없이 독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한 해석과 달리 다시 한번 이야기를 되짚어 읽게 해주는 것이다. 그림책이지만 아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테마는 과학인 그림책의 웃을 입은 과학서라고 할 수 있다.

어두운 그림 이미지의 특징은 미국의 일러스트 작가인 에드워드 고리의 작품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그림책이란 게 어두워도 괜찮잖아!' 하고 말이다.

이 책이 유별난 느낌이 나는 것은 그 내용 때문만이 아니다. 저자인 모리카와 유키히토는 CG와 게임제작자로 알려진 크리에이터다. 그는 컴퓨터 게임에서 인공지능(그는 《성냥갑 속의 뇌-사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야기》란 책을 먼저 발표했다), 그리고 생명의 불가사의로까지 그 의미를 진전시켜 왔다.

원래부터 '문과이지만 과학을 좋아하는 부류'였던 그가 이번에 그림책이란 스타일을 선택한 것은 '전문가가 아닌 자신이 타인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모리카와의 작업에는 자신이 재미있어하는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정열이 조용히 숨쉬고 있다.



German

카프카의 프라하, 고색창연한 보헤미아의 도시



원제 카프카의 프라하 Kafkas Prag
 저자 클라우스 바겐바흐 Klaus Wagenbach
 출판사 바겐바흐 Wagenbach

“카프카는 자신의 고향 프라하를 떠난 적이 거의 없다. 자기 스스로도 표현하듯 그는 ‘상습적인 방랑자’로서 도시 프라하를 잘 알았다. 저자 클라우스 바겐바흐의 안내로 카프카가 다닌 학교, 대학, 사무실을 찾아가고 그가 건넌 다리, 그가 즐겨 찾은 극장, 카페, 공원으로 그의 흔적을 쫓는다.”

이 책, 《카프카의 프라하》의 아마존 서평이다.

실제로 카프카는 체코 프라하에서 태어나서 삶 대부분을 그곳에서 보냈다. 더군다나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프라하 구 시가지 중심부에서 그리 멀지 않은, 아주 좁은 공간이 그의 생활의 터전이었다. 그렇게 볼 때 카프카의 발자취를 쫓아 프라하를 둘러보는 것은 아주 재미나는 일일 듯. 독일, 이스탄불, 파리에 대한 인문 기행서를 만들면서 비슷한 컨셉을 찾아 인터넷 서평을 하던 중, 이 책은 독특한 판형에 붉은색 양장으로 된 세련된 장정뿐만 아니라 ‘카프카’라는 제목 때문에 선뜻 내 장바구니 속에 담겼다.

저자는 카프카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클라우스 바겐바흐. 그는 이 책의 저자이면서 동시에 바겐바흐 출판사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이 출판사는 1964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1,000여 권이 넘는 책들을 출간해 왔다. 출간한 책들을 보면 출판사의 성격이 보인다. 출판사 대표가 문학가인 만큼 소설도 있지만 《그림이 있는 삶 혹은 그림 감상법》, 《선명하지 않은 사진과 그림의 역사》 같은 인문서도 있다. 참고로 이 책은 ‘작가와 그 장소’를 찾아 떠나는 인문 기행 시리즈의 하나로, 이 책 외에 《카사노바의 베네치아》, 《버지니아 울프의 런던》 등의 책이 있다.

전체 128면에 총6장으로 되어 있는 이 책은, 카프카의 어린 시절 사진부터 연인과 함께 찍은 사진 등 그의 다양한

최화명_열린책들 편집부

Kafkas Prag

모습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님이나 누이들, 친구 막스 브로트 등 그의 삶에 영향을 끼친 사람들의 사진도 있으며 카프카의 자필 원고도 몇 컷 눈에 띈다. 또 그의 생가와 학교, 대학, 그가 일한 보험회사 사무실 그리고 그에게 문학적 영감을 불러일으켰을 법한 장소들인 작업실, 카페와 극장, 도서관, 공원과 산책로까지, 100여 컷의 흑백 사진이 뽀뽀한 본문과 어우러져 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진으로 훑어보는 카프카의 간략한 전기인 동시에 카프카가 살았던 당시의 프라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도시 안내서이다. 옛 사진들이긴 하지만 그 사진 속 장소들이 오늘날 어떻게 변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독일어는 물론 체코어로 된 정확한 지도를 함께 편집함으로써 여행 안내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예를 들어 오늘날 라타우스 5번가에 있는 카프카의 생가는 주 현관만을 예전대로 보존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 집이 한동안 카프카 전시관으로 사용되었고, 1960년대 중반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건물 앞 기념상은 영화 <프라하의 봄>의 한 배경이 되었음을 알려준다. 또 그의 친구이자 이후 그의 작품을 세상에 내놓게 되는 막스 브로트의 집을 상세히 묘사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카프카를 전공한 저자의 풍부한 지식과 흑백 사진들에 대한 애정 어린 설명이 이 책을 다른 여행서와 다르게 만드는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한**